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佛敎新聞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53호

불기 2557년 10월 16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9월12일)

대우투어 daeseungtour
성일본 불교대전 예배시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초발심 자세로 헌신의 발걸음 옮기겠다"

34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

311표 중 179표…57.6% 득표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연임'

대중공의 모으는 종단운영 예고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1번 자승스님이 당선됐다. 이로써 34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10월달 종단개혁 이후 연임에 성공한 첫 총무원장으로 기록됐다. 자승스님의 임기는 오는 10월31일부터 4년간이며, 취임식 개최는 추후 논의된다.

지난 10일 오후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작된 반동안 진행된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승스님은 전체 311표 가운데 179표를 얻어, 득표율 57.6%를 기록했다. 이에 함께 기호2번 보선스님은 129표, 기호3번 대우스님은 1표를 받았다. 기호4번 무효표는 2표를 받았으며, 무효표가 1표 나왔다.

이날 자승스님은 당선소감문을 통해 "스님의 당선은 정점한 수행 풍토를 진작하고, 종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구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며 "많은 초심의 자세로 스스로를 탁마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소임자로서 원만한 발전을 을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점전에 예상했지만, 자승스님은 보선스님을 50표차로 따돌리며 압승했다. 이에 대해 자승스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단들이 지난 4년에 대한 공과 과를 냉정하게 평가해고 한국불교가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각한다"며 "종단의 명운제를를 구축과 고 약자를 돌봄으로써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한국불교 세계화를 주도하는 등의 성과과들을 종도들이 이해해주고 선택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자승스님은 연임은 10년째로 종단개혁 이후 처음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봉한종단 출범 51년째인 올해까지 종단에서 연임한 총무원장은 정탄스님, 서의현 전 총무원장과 자승스님 등 세 명에 불과하다. 연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종단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총무원장 연임은 종단 제도의 상식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불은 사람이 불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길을 뚫었지만 한대의 불빛그보다 훨씬 밝은 법보다는"는 옛 말처럼 자승스님의 연임으로 33대 집행부가 지난 4년간 추진했던 다양한 종책들이 연속성을 갖게 됐다. 특히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 자성과 과제는 향후 4년간 제계를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시점의에 보아와 종단 내 갈등이 증폭돼 나눔 시점에 여럿 경험와 종단의 자주여람 확보와 승가의 위의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주진될 것이다.

총원장은 출범 이후 최대 불사로 꼽히는 총본산 성역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구성에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구가 지역의 수행, 전례, 포교, 복지를 책임지도록 한 교구중심제 또한 한대를 맞을 것이다. 올해는 재임대 중인 견만 이양됐지만 4년 내에 인사와 행정, 재정의 자율 교구로 이관되는보면 교구가 자치단체에 여럽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자승스님은 앞서 당선소감문에서 "스님은 종단 종헌 종정을 책임지는 소임자로서, 종도의 일원으로서 승가 공동체를 다독 굳건히 해고 사 부대중이 진정 종단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혀 종앙집권화를 위어년 이 대중의견을 모으는 새로운 종단운영 예고했다.

▶관련기사 2·3·5면

이런권 기자 ernest@bulgyo.com

지난 10일 당선 확정 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시무대중의 축하속에 고별을 위해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했다. 신재호 기자 sin@bulgyo.com

불교발전은 승가화합에서 시작

국민 기대 부응하는 종단 '기대'

각계 축하메시지 화합 당부

자승스님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당선에 관한 축하는 메시지가 각계에서 이어졌다. 종단의 자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선거 후유증을 빨재하고 승단화합을 조속히 이뤄내 종정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조계종 조계종의 일면스님은 "세 동안 경험을 쌓은 만큼 앞으로의 4년도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진정한 불교발전은 승가의 화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함적스님 역시 "앞으로도 종도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종단으로 이끌어주기를 기원한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종정 역시 종단에서 대의기구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홍 중앙신도회장도 "사부대중의 화합된 모습이 여사의 격 한 속에도 한국불교가 17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라며 "경쟁과 갈등을 넘어서 화합의 종단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북동 동국대 석좌교수 또한 "불은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이신만큼 종단 구성원들과 화합해는 동시에 사회적 역할도 강화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계 인사들은 33대 집행부의 성과를 기반으로 각 분야에서 불교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고종훈구장 정우스님은 축하인사와 함께 "교구장에 취임해 전국 부대를 돌려보니 얼마한 시설의 교 법당이 너무도 많는 것 앞게 불 다"며 "총무원장 스님이 교포교의 중심에 서 달라"고 말했다.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은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국민의 정신문화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 사회의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적극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서연합회장은 "수행승과 신자과 지성과 재선과 속신노력, 어린이 청소년 포교 강화와 재가불자 역할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특별대담 '한반도평화대회' 10면 ▶20년째 군법입 법공양하는 불교신행연구원 21면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인준'

원로회의, 화합승가 구현 '당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일운스님)는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웅의상에서 4년 의기에 열고,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원의에는 24명의 원로의원 가운데 21명이 참석, 2명의 스님이 위임 장 제시를 하나 제석의원 10명이 만장일치로 34대 총무원장으로 자승스님을 인준했다.

원로회의 의장 일운스님은 회의 시작과 함께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총무원장 후보로 3명이 입후보하게 가운데 지난 10일 투표를 통해 기호1번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예정 전을 통보받았다"며 "조계종 원정수반인 총무원장 당선 인준의 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어른인 원로의원 스님들을 잘 받들겠다"며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우선 과제로 삼아야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원로회의에 앞부 스님의 인준 보류를 요구하기도 했다나, 법계으로 위자가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34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 이어 원로의원 스님들은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종단화합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선거기간 동안 벌어진 불미스러운 폭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고 종헌종법대로 처벌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일부 원로의원 스님들이 인준 날짜를 조금이 감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로의장 일운스님은 "원로회의법 11조에 따르면 중앙신도회장에서 인준요청을 통보받은 10일 안에 인준하도록 돼 있다"며 "총무원장 선거 다음날 원로회의가 인준한 전례를 따라 의장단에서 회의날짜를 정해 소집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해야 한다.

이런권 기자 ernest@bulgyo.com

한 들

정각원과 함께하는 '불교대장경'

판에도 생애방식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불교신문은 동국대학교 정각원과 공동으로 '소중과 공경' 이라는 지혜의 주제로 도모임회를 개최합니다. '법사와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 동아리' '연꽃' 또는 동국대 교수진을 모시 지혜가 되어 명예법회' '국내 최고 불과 마음자유 전문가를 모신 힐링법회' 등 연셋으로 9월말부터 6개월간 매주 토요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개최되는 법석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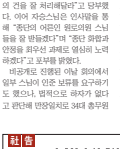
■ 기 간 : 2013년 9월 7일(토) ~ 2014년 2월 22일(토)
■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충무모닝센터 옆 3층)
■ 주요내용 : 초청법회 및 사찰순례
■ 문 의 : 02) 2260-3016~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jeongjak.dongguk.edu)를 참조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 동국대학교 정각원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 사진공모전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 관련 사진 콘텐츠를 발굴, 확보하고 국 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모집요강
• 공모분야 전통의 유형문화재, 생활문화, 민속문화재, 전통문화시설 등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의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 (전통문화의 범위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정책정보-정보센터' 참조)
• 공모기한 2013년 9월27일 ~ 11월 29일(금)까지 (접수 마감 기준)
•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작품분야 디지털 사진 파일(JPEG 이하, 3.000픽셀 이상 고기 사진파일만 접수 가능) 출력 디스크(CD) / 포토(A3 이하, 디지털은 출력 없이 가능)
팀 등 (5~10 인) 단위 단체는 단체사진 출력하여 출력 제출, 주변 풍경 등 보탠 컬라 8 10~20 사물사 출력수 인치를 13 인치보다 5줄 인쇄해 제작(제작비 실비 지급)
• 출 품 수 1인 3점 이내 지제, 팀 출품 3점 이상 출품시, 3명 이상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출 품 료 없음
• 공지방법 입상자발표는 2013년 11월 초순경 개별 통보 및 사진파일은 홈페이지 (http://kbphotoclub)에 별도 게재(KPF (www.bulgyo.com) 공지.



→ 공모내용
전통의 유형문화재
생활문화 시설 전통
전통문화, 전통문화시설

→ 시상내역
대상 1명(1점)
최우수상 3명(3점)
우수상 10명(10점)
입선상 50명(50점)

http://kbphotoclub

→ 공모기간
2013년
9월 27일
~ 11월 29일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불교신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